koha

최근 산업보건동향

한국산업위생협회
kohma.kr

E-mail kohma@kohma.kr Tel 02-782-3380 Fax 02-836-3380 [발행일] 2022. 9. 23

정부·국회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22.9.19.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1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22.9.19. 기준)을
-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기관 평가 결과 포함)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900837

산업인력공단,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신규기관 선정

-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롯데정밀화학 신규 선정, 글로벌 화학 업계 체질 변화를 선도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8.24.(수) 오전 10시 울산 롯데정밀화학 지원동에서 2022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 공단은 15개소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26년까지 매년 5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3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에 선정된 롯데정밀화학은 산업전환 특화 시설, 장비 구축 기간을 거쳐 `22년 12월경 개소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872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 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852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 가능!

-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혼자 일하거나 중소 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도 받을 수 있다.
- 각종 업무상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2021년 6월 9일부터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다.
-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든든하다.
-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01

이정식 장관,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8.31.(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남동공단의 제조업 현장 근로자들을 만나 연장근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중략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중소 제조업의 임금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보여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주52시간제 틀 속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확대해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07

고용노동부 장관, SK지오센트릭(주)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 동종.유사업종 사업장에 사고사례 전파 및 정비.점검 작업 중 철저한 안전관리 촉구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31.(수) 15:35경 울산 남구 소재 SK지오센트릭㈜ 생산공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7명의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부산청,울산지청)들이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현장조사를 개시했다.
- 참고로, 이번 SK지오센트릭㈜ 사업장은 지난 4월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사망 2명)가 발생한 바 있다.
- 이번 사고는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서 정비.보수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동일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개소의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정비·보수 작업 시 무리하고 조급한 작업 진행을 하지 않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09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활용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실무 사례집 발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장,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따른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집이 발간되었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공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사례집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 이 사례집은 공단의 안전보건경영 인증체계를 반영해 운영 중인 내용을 담아 약 370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되었다. 구성은 △ 안전보건경영매뉴얼, △ 안전보건경영절차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로 되어 있다.
- 세부적으로 안전보건경영매뉴얼은 10개 장으로, 안전보건경영절차서는 15개 절차로, 안전보건경영지침서는 20개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매뉴얼에 따른 절차와 지침이 연결되어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17

대학교 및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집중점검 실시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 현장점검 (9.19.~10.31., 280개소)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에 근거해 올해 8월 18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 이에 따라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75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산업안전보건 감독관과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감축 방안 격의 없이 논의

-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개최 -

- 고용노동부는 9.19.(월) 14시,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로,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략 -

-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책임,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여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10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21년 기준)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고, 그간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77

고용노동부, 반도체산업 등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외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게시방식 이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 그간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근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공장(FAB)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하여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 이번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이 새로 마련.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를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현장 내 키오스크 등 전산장비를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게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전산장비로 게시하려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전산장비를 작업공정 내에 설치하고 상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가 복잡한 조작 없이도 관리요령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한편, 화학물질 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으나 화학물질 관련 규제 혁신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업자가 제공한 화학물질 확인서류(LoC; Letter of Confirmation) 제출로 갈음될 수 있도록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83

스마트 기술기반, 중대재해 감축 해법제시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9월 20일(화) 14시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02호)에서「건설안전 선진화를 위한 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업 안전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하여, 건설안전 선진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내 건설현장의 구조적 이해 및 대응방향과 일본의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전략 및 정책제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석인 산업정책연구실장은 건설공사 업체 간 과당경쟁, 노령화 등 인력구조의 취약성, 중복적 법률체계 등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안전을 확보 하기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으며, (사)방제관리연구센터 김정곤 연구실장은 일본 건설업 안전관리 체계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건설사의 자주적 안전관리 실행을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세션의 좌장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화우 고재철 고문은 일본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국내의 현장 특성에 맞게 제도적으로 개선.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건설안전 패러다임 변화 및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스마트 건설안전기술 동향 및 안전관리 패러다임 변화, 건설안전 혁신을 위한 대책 및 실행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 ㈜코너스 김동오 대표는 안전기술 혁신 동향과 함께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및 현장 적용사례에 대해 대해서, 안전보건공단 미래전문기술원 김호주 건설산업안전센터장은 스마트 건설안전기술의 선결조건 및 주체별 역할,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 세션 좌장인 연세대학교 권혁면 교수는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투자 등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85

고용노동부, 중기중앙회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 안전담당자"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절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20.(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을 비롯해 플라스틱, 철강, 식품 등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관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관리자들은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를 호소하였다.
- 50인 규모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는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라며, "엄청난 서류 작업을 혼자서 다 해야 하는데 정말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 100인 규모 금형업체 B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라며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서 여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의도 이루어졌다.
- 50인 규모 방적업체 C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여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라며,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50인 규모 식품제조업체 D사는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재정 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87

고용노동부,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 고용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9월 22일(목) 오후 2시, 제조업체 대표·임원, 공장장, 안전보건관리자를 비롯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담당자,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 등 14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에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과 관련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류경희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안전 주체의 노력에 힘입어 20년 전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을 1/3수준으로 감축했으나, 지금까지의 규제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로는 감축의 한계에 직면해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라고 했다.
-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잘 만들더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죽은 정책'으로, 정부가 현장에서도 잘 작동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 간담회에는 업체 규모별로 다양한 직급에서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산업안전감독관도 각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감축을 위해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역량 구축', '근로자의 참여와 의무 확보',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99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9.21.)

-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1,500여 개소 일제 점검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오늘(9.21.)'제28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업, 지붕 공사 현장 등 전국 중소(영세)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최근 5년간 건설·제조업의 3대 안전조치 관련산업재해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10월에 추락.끼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 (사망 현황)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월평균 사망자 수는 138명이나 10월은 165명으로 19.6%(+27명) 증가했다.(그래프1 참조) 10월은 하루 평균 1.06명(165명 ÷ (31일×5년))이 사망한 셈이다. (1~9월은 하루 평균 0.91명 사망)
- 관심을 가져야 할 수치는 사망자 165명 중 126명(76.4%)이 50인(억 원)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그래프2 참조) 고용노동부가 지난 '21.7월부터 중소(영세) 사업장에 집중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이후 생략 -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90

울산 산업단지 경영자, 화학사고 예방 총력

- **공정안전 리더회의...사고 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조**
- 산업단지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울산 공정안전리더(화학단지 공장장 등)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9월 21일, 고용노동부 및 12개 울산화학단지 주요 사업장 공장장과 함께 공정안전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울산 산단에서 대형 화학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경영층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율안전관리체계구축 지원 등 정부의 화학사고 예방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울산산단 사고의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에서는 중대산업사고와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를 활용한 사고 예방 활동을 강조하였다.
- 이날 참석자들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함으로써 화학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뜻을 모았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993

안전보건공단

주간 사망사고 속보

[8/16, 부천] 덮개 이탈로 인하여 집수정 개구부에 떨어짐
[8/17, 여주] 창틀에서 작업 중 떨어짐
[8/18, 아산] 굴착법면이 무너지면서 깔림
[8/18, 광명]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8/18, 용인] 크레인에서 떨어진 H빔에 맞음
[8/21, 구미 임의동] 달비계에서 떨어짐
[8/21, 보령 주산면] 지붕에서 떨어짐(7.2m)
[8/22, 전주 덕진구] 지붕재를 밟고 개구부로 떨어짐
[8/23, 인천 강화군] 배수관 설치 중 굴착사면에 깔림
[8/23, 부산 사하구]중앙통로 횡단 중 지게차에 부딪힘
[8/18, 강원도 화천군] 슬링벨트에서 이탈한 철근 다발에 깔림
[8/21, 영천시 금호읍] 상승하는 자동 적재기와 프레임 사이에 끼임
[8/24, 김천시 어모면] 엘리베이터 설치 중 파단된 와이어에 맞음
[8/25, 인천] 작업 중 H빔에 맞음
[8/25, 천안] 차량에 부딪힘
[8/27, 부산 사하구] 지붕 보수공사 중 떨어짐
[8/27, 전주 덕진구] 작업용 리프트에서 떨어짐
[8/28, 함안] 크레인 작업 중 몸 끼임
[8/29, 인천 동구] 선박에서 떨어짐
[8/29, 봉화] 지반 붕괴로 매몰
[8/29, 의정부] 화물차에서 떨어짐
[9/1, 대구] 떨어진 철제품(샤프트)에 맞음
[9/1, 음성] 코팅 기계 설치 작업 중 떨어짐
[9/3, 달성] 떨어지는 기계에 맞음
[9/3, 성남] 굴삭기 버킷과 흙관 사이 끼임
[9/3, 당진]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짐
[9/3, 성남] 생명줄 설치 중 떨어짐
[9/4, 김포]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맞음
[9/4, 양주시 백석읍] 철골 위에서 작업 중 떨어짐
[9/4, 오산시 오산동] 사다리에서 작업 중 떨어짐
[9/1, 거제시 아주동] 스키드 정반 사이에 끼임
[9/5, 부산시 해운대구] 회전하는 임펠러에 끼임
[9/7, 부산 동래구] 떨어지는 유리에 맞음
[9/7, 서울 관악구] 유류탱크에서 떨어짐
[9/8, 전북 군산시] 천장크레인으로 상차작업 중인 자재(환봉)에 맞음
[9/9, 제주]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떨어짐
[9/13, 군포] 굴착기 전도되어 깔림
[9/14, 광양 금호동]호퍼에서 떨어진 후 하부 게이트에 끼임
[9/13, 창원 성산구]지붕에서 떨어짐(8m)
[9/14, 공주 계룡면]지붕에서 떨어짐(7.2m)
[9/14, 청주 서원구]인양고리 파손으로 떨어진 몰드판에 맞음
[9/14, 고성 거류면]배관과 배관 사이에 끼임
[9/14, 태백 장성동]죽탄에 휩쓸려 사망
[9/15, 인천 미추홀]작업발판에서 떨어짐
[9/15, 춘천 근화동]무너지는 토사더미에 가슴 맞음
[9/15, 달성 논공읍]철판에 허벅지 베임
[9/16, 창원 성산구]천장크레인과 기둥 사이 끼임
[9/16, 단양 매포읍]트레일러 차량에 부딪힘
[9/17, 청양 비봉면]황화수소 노출 및 질식(추정)
[9/17, 광양 태인동]채광창을 밟고 떨어짐
[9/20, 홍천 내면]예초작업 중 벌에 쏘임
[9/18, 서울 강남구] 달비계에서 떨어짐
[9/21, 원주 문막읍] 전기판넬 내부 진공차단기 교체 중 감전

화물운송종사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함께 모았다!

-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고 예방 캠페인 집중 전개 -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화물 하역작업 시 사망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 이번 캠페인은 건설수주 증가, 철강재 내수량 및 컨테이너 수송 실적 증가 등 화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화물 상·하차 작업 시 깔림 사망사고 등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운송종사자와 접점이 있는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캠페인을 추진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461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 반도체업종 현장경영 실시

• **삼성전자(주) 평택캠퍼스 방문, 중대재해 예방 전사적 역량 집중 당부**

□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9월 2일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주) 평택캠퍼스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안전보건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공단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 경영 실태를 확인하고 산재예방사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날 안전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5258&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국민이 필요한 안전보건을 연구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 원장 김은아)은 2023년도 신규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를 추진한다.
- 이번 공모는 산재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미래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산업재해예방 전문분야의 연구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함이다.
- 특히 금년도 연구원에서 추진한「산업안전보건 중장기 연구로드맵」관련 7대 전략주제와 연관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안 받아 내년도 연구에 반영할 예정이다.
- '23년 연구원 7대 전략 연구주제

-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사망재해) 감소
- 산재취약계층 보호
- 업무상 질병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미래 안전보건 이슈 선제적 대응
- 일하는 사람의 웰빙 증진
- 화학물질 정보 및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 안전보건 수준 향상 및 역량 강화

- 과제 공모는 산업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마감은 2022년 9월 30일 까지 이다.
- 공모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팝업창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 양식으로 작성 후 연구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하면 된다.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545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자 건강 지키기 '우리 사업장이 최고'

- 상반기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주식회사 나눔누리 등 10개소 선정
-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안종주)은 상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였다.
- 신청사업장 20개소 가운데 선정된 사업장은 신규 사업장 10개소*와 연장사업장 1개소**이다.

* (신규) 주식회사 나눔누리, ㈜국민은행 본점, 국민연금공단(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본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 인천발전본부, 에스케이하이닉스(주) 분당, 에스케이하이스텍주식회사, 포스코에너지(주) 인천발전소, 로버트보쉬코리아유한회사

** (연장) 씨제이제일제당(주) 인천2공장

- 중략 -

- 현재까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유지중인 곳은 총 107개소이며,
-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려면 체계구축, 경영진의 인식수준, 조직문화, 건강증진활동사항, 환경관리, 프로그램운영(계획, 실행, 평가, 환류), 협력업체 관리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
-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광역본부 및 경기지역본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은 11.30.(수)까지다.

*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사업소개>산업보건>근로자 건강증진>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29번 글 참조

※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35501&article.offset=0&articleLimit=10